

미디어서사로의 전이 과정에 나타난 전우치 전승의 굴절과 의미

정제호*

— <차 례> —

1. 들어가며
2. 전우치에 대한 인식의 추이
3. 미디어서사로의 전이 과정에서 나타난 전우치 전승의 굴절
4. 결론을 대신하여 : 또 다른 미디어서사 드라마 <전우치>

<국문초록>

고전소설 <전우치전>의 주인공 전우치는 작품 내에서 양면적인 성격을 보인다. 전우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악을 징벌하며 등장한다. 하지만 임금을 희롱하고 여인을 훼손시키는 부정적인 면모도 함께 갖는다. 하나의 작품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여러 문헌 전승에서도 전우치를 양가적인 형상으로 그리고 있어, 그에 대한 당대의 인식의 추이가 매우 다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작품의 주인공이 부정한 행위로 인해 대결에서 패배하고 징벌을 받기까지 한다는 점 역시 특이한 설정이라 하겠다.

하지만 미디어서사로 전이되며 전우치는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악인이 아닌 세상의 구원자로 다시금 변화한다. 여전히 그는 임금을 희롱하고 진중하지 못한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결말의 승패는 정반대로 바뀌는 것이다. 도술로써 세상을 현혹시켰던 전우치가 그 도술로 세상을 구하는 새로운 영웅으로 탄생하게 된다. 이런 전우치에 대한 결말의 변화는 해당 서사를 소비하는 시장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계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이 불온한 도술가이자 패배자였던 전우치가 새로운 시대와 영화라는 환경에서 영웅으로 수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 안동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학술연구대우교수

이와 같은 전우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지금은 전우치의 다면성이 매력으로 수용되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영웅을 규정하는 것은 인물의 행위보다는 당대 사람들의 인식이 더 크게 작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전우치전>, <전우치>(2009), 미디어서사, 전이, 굴절

1. 들어가며

최근 영화 <홍부>(2017)가 개봉하였다. 얼마 전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배우 김주혁의 유작이라는 점과 함께 고전소설, 판소리 등으로 전승되는 고전서사를 영화화한 작품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달리 흥행 면에서는 참패에 가까운 기록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40만 명 정도를 동원하는 것에 그치면서 대중의 관심도 빠르게 식어버렸다. <홍부>의 경우 감독의 성추행 의혹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작품에 대한 평가 역시 차가웠기에 고전서사 활용의 실패 예시로 인정될 수밖에 없었다.¹⁾

사실 고전서사를 영화화한 많은 작품들이 흥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²⁾ 전국 관객 수가 40만에 그친 <마담 뺑덕>(2014) 역시 원작 <심청전(가)>이 갖는 대중성에 비한다면 저조한 흥행 성적을 받아들여야 했

1) 영화 <홍부>의 경우 네이버와 다음 양대 포털에서 기자, 평론가들에게 4.57, 4.6(10점 만점)이라는 낮은 평점을 받은 바 있다.

2) 고전의 영화화는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진 부분이다. 새로운 시나리오의 작성보다는 이미 인기 있는 고전들을 활용하는 것이 영화 산업의 주류였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대체로 2000년 이후 새로운 미감으로 영화화된 작품들을 언급하였다. 이들 작품들을 통해 고전이 미디어서사로 전이되며 새롭게 활용되거나 변이되는 양상을 뚜렷하게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현대극으로 <심청전>을 새롭게 변화시켰지만, 대중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심청전>이 판소리, 창극 등 다양한 매체와 장르를 통해 새롭게 활용되고 있는 인기작인 것을 고려한다면, 영화에서의 실패는 향후 활용의 확장에 있어서도 여러 제약들을 남길 수 있기에 더욱 아쉽다.³⁾ 물론 고전의 활용이 늘 실패한 것은 아니다. 성공한 사례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특히 300만 명이 가까운 관객을 모은 <방자전>(2010)과 <장화홍련>(2003)은 상업적인 성공과 함께 평단의 평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원작 <춘향전>과 <장화홍련전>을 성애(性愛)와 공포의 극대화를 통해 작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창출했다고 평가받는다.⁴⁾

그런데 <방자전>이나 <장화홍련>보다 더 큰 흥행을 만들어 낸 작품이 있어 주목된다. 고전을 영화화 한 작품 중에 가장 큰 흥행을 한 작품은 <전우치>(2009)이다.⁵⁾ 영화 <전우치>는 고전소설, 야담, 설화 등에서 유통 및 전승되는 ‘전우치’를 소재로 영화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6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여 고전을 활용한 영화 중 큰 성공을 거둔 보기 드문 사례로 꼽힌다.⁶⁾ 더욱이 그 내용이 고전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

3) 신호림은 <마담 뽀뽀>이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심청전> 서사를 지배하고 있는 심청 중심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신호림, 『심청전에 대한 현대적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 영화 <마담 뽀뽀>(2014)을 대상으로-』, 『동양고전연구』 66, 동양고전학회, 2017, 325~326쪽.

4) 고전서사의 콘텐츠 활용 양상에 대해서는 정혜경이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한 바 있다. 정혜경, 『고전서사를 활용한 콘텐츠 동향과 기획』, 『우리문화연구』 57, 우리문화연구회, 2018, 119~159쪽.

5) 최근 <신과 함께>가 영화화 되어 천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바 있다. 하지만 <신과 함께>의 경우 웹툰 <신과 함께>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웹툰이 우리나라 여러 서사무거나 전통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논의할 만하지만, 직접적으로 고전서사를 영화화한 작품은 아니기에 본고에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다.

그래픽 기술을 활용한 ‘판타지’ 장르로 제작되면서, 고전과 현대의 긍정적인 만남의 예로 자리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가능했던 것은 <전우치전>이나 전우치 설화 등에 등장하는 ‘도술’이 다른 작품들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영웅소설에서 범인(凡人)과 다른 능력을 뽐내는 인물군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상상력은 다소 획일한 전형성을 보이기에 새로운 조망 자체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전우치전>은 도술이라는 비범성을 활용함으로써 평범하지 않은 미감을 표현⁷⁾하고 있기에 영화로의 변용까지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런 도술을 비롯한 초현실적 설정이 현대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시각적으로 제시되면서 새로운 판타지 영웅 캐릭터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영화 <전우치>의 성과는 다양한 학술적 연구 역시 가능케 하였다. 영화로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고전의 활용이라는 측면에 있어 학술적 가치 역시 어느 정도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고전 작품들보다 현대 콘텐츠에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평가되면서, 영화 <전우치>의 개봉 이전부터 지금까지 ‘전우치’라는 인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⁸⁾ 또한 <전우치>의 개봉 이후 본격적으로 해당 영

6) 영화 <전우치>는 ‘영화진흥위원회’ 기준 6,136,928명의 관객을 동원하였으며, 44,605,437,017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역대 흥행순위 61위의 기록이다.

7) <전우치전>은 이본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영웅소설’의 범주 포함시키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우치전> 자체의 문체라기보다는 영웅소설에 대한 규정 자체가 ‘영웅의 일생구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영웅의 일생구조에 비추어 볼 때, <전우치전>은 실패한 영웅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박일용은 일반적인 영웅에 대한 개념 정의인 “집단적 공동체 이념의 실현을 위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인물”로서는 전우치가 적합하진 않지만, “민중적 역사 영웅소설”로 따로 묶어 다룰 수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박일용, 『영웅소설 하위 유형의 이념 지향과 미학적 특징』,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126~127쪽.

8) 서유경은 <전우치전>을 영화 <브루스 울마יתי>와 비교함으로써 영화로의 확장 가

화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⁹⁾ 다만 영화 <전우치>가 갖는 의미를 정치하게 분석하거나, 원작과의 관계를 심도 깊게 연구한 논문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단순히 성공 사례의 하나로만 언급¹⁰⁾되거나, 원작이 갖는 구조를 새롭게 재편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는 다소 뻔한 주장¹¹⁾이 반복된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고전소설 <전우치전>을 비롯하여 여러 ‘전우치 전승’¹²⁾을 활용한 영화 <전우치>의 인물¹³⁾, 공간¹⁴⁾, 매체적 특성¹⁵⁾, 교육적 활용¹⁶⁾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다. 영화

능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안기수는 <전우치전>의 게임화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며, 유서연은 전우치를 모델로 하여 한국형 슈퍼히어로 캐릭터의 개발에 대해 논하기도 하였다. 서유경, 『<전우치전> 읽기의 문화적 확장 탐색 -<전우치전>과 <브루스 울마이트>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20, 한국독서학회, 2008, 201~231쪽; 안기수, 『고소설 <전우치전>의 게임화 방안 연구』, 『어문논집』 67, 중앙어문학회, 2016, 67~95쪽; 유서연, 『문화콘텐츠로서 스토리 기반의 슈퍼히어로 캐릭터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143쪽.

- 9) 기본적으로 원작으로 대표되는 고전소설 <전우치전>과 영화 <전우치>의 서사구조를 비교한 연구가 있다. 조도현, 『<전우치> 서사의 현대적 변이와 유통방식 : 영화 <전우치>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4, 2010, 371~390쪽; 이종호, 『고전소설 <전우치전>과 영화 <전우치>의 서사구조 비교 연구』, 『온지논총』 26, 2010, 243~270쪽; 정다정, 『영화 <전우치>의 소설 <전우치전> 수용 양상』,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68쪽; 이동근, 『고전소설의 장르 전환 연구 - 영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64쪽.
- 10) 조해진, 『한국판타지영화의 발전환경 및 가능성 연구』, 『인문콘텐츠』 21, 인문콘텐츠학회, 2011, 149~175쪽.
- 11) 신원선, 『한국고전소설의 영상콘텐츠화 성공방안 연구 - 영화 <전우치>와 <방자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365~402쪽.
- 12) 전우치에 대한 서사는 소설 <전우치전>뿐만 아니라 설화, 야담 등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이를 포괄하여 지칭할 때는 ‘전우치 전승’이라 명명하도록 하겠다.
- 13) 현승훈, 『한국형 슈퍼히어로 영화의 영상미학적 특성 연구 - 영화 <전우치>의 플롯 구조와 인물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0, 한국콘텐츠학회, 2013, 132~139쪽.
- 14) 정선경, 『고전의 현대적 변용 : 영화 『전우치』의 공간 읽기』, 『도교문화연구』 35, 한국도교문화학회, 2011, 143~169쪽.

를 대상으로 한 학술논문이 다양하게 제출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우치>의 경우 많은 성과를 배출하게 한 특별한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영화 <전우치>를 대상으로 한 여러 논점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우치’와 관련된 이야기는 고전소설 <전우치전>만이 아니다. <전우치전> 역시 이본마다 내용 전개가 다르고, 설화 등의 영역에서 전우치가 등장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들 이본과 각편에서 등장하는 전우치의 성격이 상이함에도 여기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영화 속 캐릭터에 대한 이해로 나아간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영화 <전우치>의 주요 캐릭터인 서화담은 전우치 전승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서화담전>이라는 고전소설 속 주인공으로도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속에서 영화 <전우치>를 다시금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화 속에 나타난 전우치와 서화담의 관계는 일반적인 전우치 전승에 나타난 관계와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작품의 중심 서사가 발현되는 환경, 즉, 고전소설과 영화라는 매체적 성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우치와 서화담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시금 영화 <전우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화 <전우치>에 대한 이해에서 더 나아가 고전서사의 미디어서사로의 전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들을 함께 조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5) 진수미, 「자기반영성의 영화로서 <전우치> -매체 재현을 중심으로」, 『씨네포럼』 26,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17, 239~266쪽.

16) 전숙경, 「영화 ‘전우치’를 활용한 고전소설 <전우치전> 교육방안」,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56쪽; 이유진, 「고전소설 교육의 영화매체 활용 방안 연구: 고전소설 <전우치전>과 영화 <전우치>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74쪽.

2. 전우치에 대한 인식의 추이

<전우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영화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원작이라 할 수 있는 <전우치전>을 비롯한 여러 전우치 관련 서사의 양상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던 소설과 영화의 서사구조에 대한 단순 비교에서 더 나아가 전반적인 전승의 양상과 추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전우치에 대한 전승과 이를 통해 축적된 캐릭터에 대한 인식이 영화화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용 및 굴절되었는지 보다 명확하게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우치에 대한 서사는 다양한 장르에서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고전소설 <전우치전>이 전우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우치는 고전소설뿐만 아니라 설화, 야담 등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전우치전>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한 것 역시 여러 양상을 보이는 ‘전우치 전승’에 대한 정리였다.¹⁷⁾ 이들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전우치 전승에 나타난 인물의 다양한

17) 전우치 관련 서사의 이본 및 각편에 대한 정리와 함께 형성과정에 주목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윤재근, 『전우치전설과 『전우치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1~97쪽; 박일용, 『전우치전과 전우치 설화』, 『국어국문학』 92, 국어국문학회, 1984, 37~60쪽; 이현국, 『<전우치전>의 형성과정과 이본간의 변모양상』, 『문학과 언어』 7, 문학과언어연구회, 1986, 143~162쪽; 문범두, 『<전우치전>의 이본 연구 - 형성과정과 의미를 중심으로-』, 『영남어문학』 18, 영남어문학회, 1990, 227~256쪽; 김정문, 『<전우치전>의 개작 연구 - 목판본과 구활자본의 대비를 통하여-』, 『베달말』 19, 베달말학회, 1994, 187~209쪽; 최광석, 『<전우치전>의 설화 수용과 지평 전환』, 『국어교육연구』 28, 국어교육학회, 1996, 151~176쪽; 변우복, 『신문관본 <전우치전>의 개작 양상과 개작자』, 『국제어문』 18, 국제어문학회, 1997, 109~134쪽; 변우복, 『<<전우치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229쪽; 이상구, 『광양 태인도의 <전우치전설> 연구』, 『국어교육연구』 44, 국어교육학회, 2009, 353~394쪽; 전상욱, 『세책 <전우치전>의 위상과 의미 - 신문관 육전소설 및 경판 37장본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59, 열상고전학회, 2017, 311~342쪽.

성격을 파악하는 것 역시 주요한 연구 흐름으로 자리하기도 하였다.¹⁸⁾ 이런 이유로 전우치라는 인물이 현대 콘텐츠에서 활용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일한 작품만이 아닌 전체적인 전승의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우치 관련 전승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고전소설 <전우치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도 가장 먼저 <전우치전>이 갖는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전우치전>의 서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¹⁹⁾

- ① 전우치가 태어나고, 그 아버지는 죽는다.
- ② 여우와 구미호에게 호정과 천서를 얻어 도술을 지니고, 천지의 이치를 통달한다.
- ③ 임금을 속이고, 우롱하며 황금 들보를 얻는다.
- ④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을 구하고, 선량한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를 골려 준다.
- ⑤ 교만한 선비를 징계하고, 억울하게 죽게 된 고직이를 구한다.
- ⑥ 가난한 사람을 구하고, 그가 욕심내는 것을 경계시킨다.
- ⑦ 거만한 선전관을 우롱한다.
- ⑧ 임금의 명을 받고 도적 임준을 토벌한다.
- ⑨ 자신을 미워하는 선전관들을 징벌한다.

18) 정환국, 「전우치 전승의 굴절과 반향」, 『민족문화사연구』 41, 민족문화사학회, 2009, 213~239쪽; 이종필, 「전우치 전승의 양가적 표상과 그 역사적 맥락」, 『어문논집』 75, 민족어문학회, 2015, 33~56쪽.

19) <전우치전>은 필사본 2종, 판각본 2종, 활자본 2종, 한문필사본 1종 등의 이본이 있다. 본고에서는 필사본의 하나이자 가장 오래된 이본으로 보이는 일사본(一叢本)을 기준으로 <전우치전> 서사를 정리하고자 한다. 김일렬 역주, 『홍길동전/전우치전/서화담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185쪽 참조.

- ⑩ 역적으로 몰려 위기에 처하지만 도망친다.
- ⑪ 부녀자를 희롱하는 중을 자신의 모습으로 바꾸어 임금을 희롱하고, 중도 징벌한다.
- ⑫ 자신을 시기하는 관리 왕연희를 징벌한다.
- ⑬ 질투심이 강한 여인을 징계한다.
- ⑭ 상사병으로 죽게 된 친구를 위해 과부를 훼손시키려다 강림도령에게 질책을 받고, 다른 여인으로 친구를 살린다.
- ⑮ 서화담과의 도술 경쟁에서 굴복하고, 도를 닦고자 입산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전우치전>을 정리할 수 있다. <전우치전>에 나타난 인간 ‘전우치’의 형상은 다소 복잡하다. 대체로 성격이 단조로운 고전 소설의 주인공들과 달리 전우치는 한 작품 내에서도 다양한 성격을 보여 주고 있어 어느 하나의 키워드로 그를 규정하기 어렵다. 전우치가 여러 도술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부정한 관리들을 징벌하는 장면에서는 영웅의 면모가 엿보인다. 물론 방법이 ‘도술’이기 때문에 영웅소설 속 주인공²⁰⁾들과는 조금 차별되긴 하지만, 결과가 정의의 실현이었기에 그의 긍정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억울하고, 선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힘쓰는 모습은 ‘민중영웅’의 모습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문제는 전우치는 민중영웅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전통사회의 관념에서 임금을 희롱하는 모습은 그가 당대 가치관에서 탈주하는 인물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물론 전우치를 옥황의 선관(仙

20) 대체로 영웅소설 속 주인공은 신기에 가까운 무공과 기물을 통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주로 보인다. 물론 이들이 재능을 획득하는 계기는 우연히 취득한 병서나 신물을 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우치전>과의 유사점도 있다. 다만 <전우치전>에서는 ‘도술’이라는 측면이 좀 더 부각되어 다른 작품들과 차별성을 드러낸다.

官)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임금이지만, 전우치가 보이는 행동은 결코 긍정적으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더욱이 전우치가 보이는 행동의 특이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지만 수절 과부를 강제로 훼손시키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강림도령의 제지를 받고, 도술 경쟁에서도 패배하여 질책을 받는다. 영웅소설에서 영웅들의 결말이 ‘승리자’로 점철되는 것과 달리 전우치는 작품 내에서 패배한다는 점 역시 특이하다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패배가 더욱 큰 성장을 위한 복선이 되는 것도 아니다.²¹⁾ 전우치의 패배는 강림도령에게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우치는 서화담에게 다시 패배하면서 입산(入山)하고 마는 결말을 맞이한다. 강림도령이야 작품에서 외양은 거지 몰골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본래적 정체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격이다. 강림도령은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차사본풀이>의 주인공으로 열시왕의 부름을 받아 저승차사로 좌정하는 인물이다.²²⁾ 이런 신적 속성을 갖는 인물에게 패배하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삼천 년을 산 동방삭 역시 강림도령에게 잡힐 정도로 대단한 신화 속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우치는 같은 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화담과의 도술 경쟁에서도 패배하고 만다. 특히 서화담은 전우치의 모든 도술 행위가 사특(邪慝)하다고 말하며,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결

21) 이런 견해와 달리 최지선은 <전우치전>을 내면적 각성과 성숙의 과정을 보여주는 성장 소설이라 규정하기도 하였다. 다만 <전우치전>의 결말에서 전우치가 서화담을 따라 도를 닦는다고만 제시될 뿐 그가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결말부에서도 서화담의 지시를 무시하고 마지막까지 달아나려는 모습이 더 명확하게 남아 있다. 이런 이유로 전우치는 결말에서까지 천방지축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최지선, 『<전우치전>의 육망 구원 방식과 서사적 의미 - 신문관본 <전우치전>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28, 돈암어문학회, 2015, 249쪽 참조.

22) 최근에는 이런 강림을 주인공으로 하는 웹툰 <신과 함께>가 영화화되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다.

국 패배한 전우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산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상적 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화담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전우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작품 내에서 혼재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전우치전>은 소설의 주인공이 패배하는 내용으로 귀결된다. 주인공인 전우치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은 매우 특이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작품 내에서 여러 긍정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패배하는 결말 때문에 전우치는 부정적인 형상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다른 이유도 아닌 전우치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징벌이라는 점에서 영웅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해당 부분을 식자층의 의식을 통해 전우치의 행적을 평가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덧붙여진 단락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²³⁾ 다만 이러한 전우치의 부정적 면모는 소설 <전우치전>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 서사에서도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는 장면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우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고전소설 <전우치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 문헌 속 전우치 역시 다양한 인식이 드러나며, 그 한 측면은 매우 부정적인 인식으로 전우치를 그리고 있다. 전우치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인 『송와잡설(松窩雜說)』에는 전우치를 “배우지 않고도 글을 잘 했으며 시어가 시원스럽고, 사람들은 모두 그가 도술로 귀신을 부린다고 하였다.”²⁴⁾고 전한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우치를 서술하면서도 그의 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현감의 부탁으로 역질(疫疾)을 고치는 전우치의 행적이 이

23) 박일용(1984), 앞의 논문, 48쪽.

24) “田禹治海西人也 不學而能文 詩語灑落 人皆以有道術役鬼神稱之” 이기, 『송와잡설』

어지며 긍정적으로 도술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²⁵⁾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의 전우치에 대한 기록만큼이나 그의 도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자료도 많다. 《천예록(天倪錄)》에서는 전우치를 세상을 우롱하는 도사로 묘사하기도 하고, 남의 부인을 탐하여 범하는 인물로 기록하기도 하였다.²⁶⁾ 또한 《해동이적(海東異蹟)》에서도 전우치를 환술을 익혀 부녀자들과 음분(淫奔)을 저지른 인물로 그리고 있다.²⁷⁾ 그리고 《어우야담(於于野譚)》에서는 조정을 피해 달아나던 전우치가 자살하는 것으로 그의 생애 끝을 묘사하고 있기도 하다.²⁸⁾ 여러 문헌에서 전우치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더 나아가 도술로 패륜(悖倫) 행위를 저지른 인물로까지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²⁹⁾ 이들 자료에서 그리고 있는 전우치의 특성은 단순히 ‘부정적 인물’ 정도가 아니라 ‘악인’으로까지 이해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전우치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그의 역사적 위치, 도술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 당대 정치적 맥락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한 결과물일 것이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우치에 대한 인식은 계속해서 변화하며 전승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런 인식의 변화 추이는 서화담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징하게 드러난다. 대결에서 승리하는 서화담의 경우 전우치와 같이 도술을 사용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양상만이 드러난다. 이런 서화담의 특성은 <전우치전> 외에 <서화담전>에서도 살필 수 있다. <서화담전>은 조선

25) 이밖에 『동야취집(東野叢輯)』 등의 자료에서도 전우치의 긍정적 행위에 대한 서술이 등장한다. 이종필(2015), 앞의 논문, 38~40쪽.

26) 임방, 정환국 역, 『천예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39~40, 64쪽.

27) 홍만중 편, 황윤석 증보, 신해진 외 역, 『증보 해동이적』, 경인문화사, 2011, 162~163쪽.

28) 유몽인, 신익철 외 역, 『어우야담』, 돌베개, 2009, 183~184쪽.

29) 앞서서도 밝힌 것처럼 전우치에 대한 양가적 인식은 정환국과 이종필의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바 있다. 정환국(2009), 앞의 논문; 이종필(2015), 앞의 논문.

전기의 인물인 서경덕을 주인공으로 삼은 고전소설³⁰⁾로, 1926년 광동서국에서 ‘도술이 유명한 서화담’이라는 제목을 붙여 활자본으로 간행한 것이 유일본이다.³¹⁾ 이 <서화담전>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서경덕의 인물 특성을 일정 정도 차용하면서도, 도술에 달통한 ‘도사’라는 성격을 명징하게 드러내는 작품이다. 철학자로서의 ‘서경덕’보다는 도사로서의 ‘서화담’이 바로 <서화담전>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³²⁾

<서화담전>에서 서화담은 다양한 도술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한다. 같은 도사지만, 서화담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약자를 구하며, 어리석은 인물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한다.³³⁾ 전우치가 도술을 사용하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드러낸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서화담전>의 결말에서는 <전우치전>과 달리 도술로 인해 징치 받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 서화담의 여러 긍정적 행위만이 작품 전체에서 나열되듯 제시될 뿐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전우치전>에서 주인공을 부정적 형상과 패배의 결말로 제시한 것을 단순히 그가 도술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도술을 씬에도 서화

30) <서화담전>의 정착 과정에 대한 논의는 권순공의 연구를 참고할 만하다. 권순공, 『서화담에 관한 ‘이야기 만들기’와 『서화담전』의 형성』, 『민족문화』 48, 한국고전번역원, 2016, 113~146쪽.

31) 김일렬 역주(1996), 앞의 책, 372쪽.

32) 역사 속 서경덕은 ①주역에 달통하고, ②도가사상에 관심이 높았으며, ③주기론자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사상적 배경 속에서 명리를 바라지 않고, 은거하였던 그의 성격으로 인해 민간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김미란, 『서화담전 연구: ‘전우치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내어문학』 14,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2003, 41~44쪽.

33) 태어나면서부터 뛰어났던 서화담은 천상계의 친구인 선관에게 천서를 얻으며 도술을 익힌다. 이후 원귀의 한을 풀어주고, 아내를 깨우치고, 효자를 구하고, 함부로 도술을 쓰는 아우와 생질을 혼계하고, 간신의 위해를 피하고, 기생의 유혹을 물리치고, 구미호에 홀린 제자를 구하는 등 긍정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해나간다.

담은 긍정적인 서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우치와 서화담이 쓰는 도술의 양상이 크게 차이가 없음을 고려한다면, 더욱 전우치의 부정적 형상을 도술만으로 설명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전우치는 ‘도술’이라는 조선 사회에서 정통으로 규정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부정적 형상으로써 그려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같은 도인이지만 전우치와 서화담은 큰 차이를 갖기 때문이다. 서화담은 전우치와 같이 도술을 쓰는 존재지만, 그 근본은 ‘유학자’이다. 그가 유학에서도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다는 점 때문에 도술을 쓰는 도사로서 묘사된 면이 있지만, 그 근본이 유학자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³⁴⁾ 역사적 기록이 변변치 않고, 홀로 은거했다고 전해지는 전우치와 그 위치와 입장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같은 도술을 쓰지만 유학자인 서화담을 등장시켜 전우치에게 우위에 있음을 대결로써 제시하는 것이다. <전우치전>에서는 도술로 이름 높은 전우치지만, 유학자인 서화담에게 그의 장기라 할 수 있는 도술로써 패배하는 결말을 취한다. 도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학자의 도술로 극복하는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서화담의 경우 도술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전우치와 같은 양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도술이라는 수단보다는, 그 수단으로 이룬 결과가 당대 이데올로기를 옹호한다면 긍정적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데올로기의 수호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겠다.

34) 서화담 관련 야담의 전승에 있어서도 그가 유학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서경덕이 지리산에서 한 異人을 만났다. 그는 30여세 되어 보였는데 겨드랑이 아래에 털이 쌓으로 한자나 넘게 뻗어나 있었다. 그는 서경덕에게 자기를 따라 九轉之術을 행하며 놀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이에 서경덕은 “術이란 것은 쉼이 높아야 한다. 나는 孔子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따르고 싶지 않다.” 그 異人이 탄식하며 “그대와 나는 道가 서로 달라 도모하는 바가 같지 않구려. 나 또한 그대의 높은 도를 합니다.” 하였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그 異人을 보지 못하였다. 정명기, 『鶴山閑言』, 『한국야담자료집성』 8, 계명문화사, 1987, 354쪽.

전우치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계속해서 인식의 변화를 겪고 있는 인물이다. 이것은 그의 인물됨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수용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인식의 추이는 선행 연구³⁵⁾의 지적처럼 당대의 이데올로기나 시대적인 맥락과 관련된 것이지만, 본고에서 더 중요하게 살피는 점은 전우치가 이렇게 계속해서 양상을 달리하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었다는 점이다.³⁶⁾ 이는 대중들의 전우치에 대한 선악에 대한 판정과 달리 일정 이상의 매력을 가진 인물임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우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다양한 인식들이 포함된 기록으로, 또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승되는 설화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당대의 사고와 맥락에 따라 전우치와 그의 성격을 다르게 인식시킴으로써 계속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즉, 시대에 맞게 전우치라는 인물을 만들어 나갔고, 또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이 결국 지금까지 이어져 ‘영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통해서도 전우치가 다시 한번 향유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35) 정환국은 전우치의 전승이 긍정(16세기)→부정(17세기)→정리(18세기 이후)의 흐름을 보인다고 정리하였다. 이런 변화에는 17세기 충렬(忠烈)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정환국(2009), 앞의 논문, 236쪽.

36) 이후남은 전우치가 보이는 여러 혼재된 성격을 다중인격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어 <전우치전>이 다중인격을 치료하는 치유담적 성격을 갖는다고도 보았다. 다양한 면모를 보이는 전우치의 특성을 정신병리학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문제는 전통사회에서 다중인격에 대한 병리적 규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이를 치유하기 위한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는다. 게다가 치유의 역시 효과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문학적치료의 사례를 찾기 위해 역으로 작품을 대입시킨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오히려 전우치의 다양한 면모는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그에 대한 다양한 전승을 통해 누적된 결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하겠다. 이후남, 『치유담으로 읽는 <전우치전> -조선판 다중인격 전우치』, 『문학치료연구』 48,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215~242쪽.

3. 미디어서사로의 전이 과정에서 나타난

전우치 전승의 굴절

앞 장을 통해서 전우치 전승의 다양한 맥락들을 살펴보았다. 전우치는 고전소설 <전우치전> 안에서도 여러 면모를 드러내지만, 그에 대한 여타의 기록들에서는 더욱 극단적인 면이 확인되는 인물이다. 이와 같은 전우치의 다양성은 전통사회에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맞춰 다르게 ‘평가’하는 요소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전형성을 탈피한 ‘매력’을 가진 인물로 ‘재창조’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즉,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우치를 또 다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화 <전우치>에서는 그 소재적 원천이 되는 고전소설 <전우치전>이나 여러 전우치에 대한 기록과는 또 다른 전우치를 만들어 낸다.

고전소설 <전우치전>에서 전우치는 서화담에게 패배하고 은둔하는 인물이다. 잘못된 방식으로 도술을 썼으니 서화담에게 패배하는 것은 일견 수긍되기도 한다. 사실 어찌 보면, <전우치전>을 비롯한 전우치 전승에 있어 둘의 관계는 늘 서화담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단순히 서화담이 더 인기가 있거나,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우치전>에 비해 <서화담전>이 더 인기가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많은 이본을 제작 및 유통시키고, 설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전승으로 남은 것은 ‘전우치’이다. 이에 비해 <서화담전>은 이본이 광동서관본 하나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서화담 역시 여러 설화나 야담 등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만, 전우치 만큼의 영향력을 보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서화담의 경우 문헌에 따라 유학자로 묘사된 경우도 많아 ‘도사’라는 특성을 온전히 보이는 캐릭터로는 전우치가 더 밀접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작품의 결말에서 승리자는 서

화담이라는 것이 전우치와 서화담의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중요한 지점이라 하겠다.

<전우치전>에서 결국 서화담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대 의식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작품의 주인공은 당대 사회의 이념과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인물에 가까운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전우치전>의 서사를 살펴보면, 그 내용 자체가 전우치를 중심으로 쓰였기 때문에 결말에서 역시 악인을 물리친 전우치를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악인으로써까지 취급되는,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계속해서 전승 맥락을 이어온 전우치는 승리자가 될 수 없는 인물이다. 아니 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다.³⁷⁾

신비한 도술을 쓰는 전우치는 분명 당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인물로 수용된 듯하다. 많은 설화적 전승과 소설의 이본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매력적인 것과 승리자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캐릭터로 인정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악의 가치를 함께 표상하는 전우치가 승리자가 되는 것을 볼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상적인 인물로 주인공의 대척점에 서 있는 서화담이 등장하여 전우치를 일깨워주는 형태로 결말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전우치전>에서는 전우치의 다양한 매력과 달리 이상적이고 훈계적인 결말이 제시되게 된다.

특히 이런 결말이 가능한 것은 서화담이라는 인물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인으로서의 측면을 공유하고 있지만, 분명한 유학자이면서 사

37) 호건은 전통적으로 국가나 왕, 민족 등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 영웅이 사회규범적인 인물로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영웅 역시 가문이나 국가와 같은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Hogan, Patrick Colm, *The Mind and its Stories: Narrative Universals and Human Emo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적으로도 이름 높은 인물이 존재했기에 가능한 설정이다. 그래서 같은 도사지만, 더욱 이상적인 인물을 작품 속에 수용하여 그를 승리자로 만들고, 전우치는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작품의 묘미를 살리고 이상적 결말까지 함께 가져가는 구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전우치전>에서 대부분의 내용은 전우치가 도술을 뽐내고 사람들을 돕고, 또 한편으로 골려주는 형태이다. 다양한 도술을 사용하는 전우치의 모습이 <전우치전>이 갖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사람들이 즐겁게 탐독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다만 결말만을 틀어 서화담을 끌어들이므로써 이상적 주제까지도 함께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품이 전개되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전우치와 서화담의 관계는 미디어서사로의 전이 과정에서 완전히 변화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영화 속 전우치와 서화담은 선악의 구도를 정반대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 속 전우치가 이상적 선인(善人)으로만 형상화되는 것도 아니다. 여전히 전우치는 가볍고, 천방지축이며, 도술을 안정적으로 쓰지도 못한다. 즉, 영화 속에서도 부족한 캐릭터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고전소설에서 보였던 긍정적인 면모만을 고려한다면 더욱 모자란 인물로 그려진다고까지 평가할 수 있다. 선인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서 전우치가 갖는 기본적인 인물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전우치가 왕을 희롱하고, 사람들을 놀리는 것이 악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흥미 요소로 수용된다.³⁸⁾ 시대의 변화로 전우치의 행동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양상은 서화담도 마찬가지이다. 서화담은 영화 전우치에서도 진중하고, 도술에 능하며, 전우치보다 능력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다만 그

38) 물론 평가에 따라 고전소설 <전우치전>에서 보이는 풍자와 시대 비판의 심각성이 축소되고 흥미 위주로 표면적인 수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한다. 정다정(2011), 앞의 논문, 36쪽.

러한 능력이 결과적으로 악하게 쓰이면서 악인의 전형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작품 내에서 서화담을 근본적인 악인으로 그리는 것도 아니다. 악귀에게 몸을 뺏김으로 인해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인으로 변모한다. 서화담 자체는 악인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기 어렵기에, 악귀를 그의 몸 안에 넣음으로써 서사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럼에도 전우치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인 서화담이 악인으로 자리하면서, 천방지축에 도술도 자기 흥미를 위해 쓰는 전우치는 어느새 세상을 구하는 영웅의 자리로 위치하게 된다.

전우치와 서화담 모두 그 성격 특성을 <전우치전>의 양상과 유사하게 제시하면서도, 그로 인한 선악의 위치, 그리고 결말의 승패는 정반대로 뒤바뀌는 것이다. 결국 영화 <전우치>에서는 전우치와 서화담의 인물 성격은 전통 서사의 전승을 활용하면서도, 그 선악구도를 굴절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상적 도인으로 그려진 서화담은 악귀에게 몸을 빼앗기고,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악인의 전형으로만 남게 된다. 이에 비해 전우치는 영화 내에서 점차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악인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승리자로 자리한다. 앞에서 살핀 고전소설 <전우치전>과 판이한 내용으로 귀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전우치와 서화담이 표상하는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두 캐릭터를 소비하는 시장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과거에도 전우치처럼 다면적인 성격을 갖는 인물이 인기가 높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인물을 최종적인 승리자로 내세우는 결말을 제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수밖에 없다. 충효열 등을 주요한 작품 주제로 삼는 고전소설의 주된 유통 양상 속에서 전우치는 결함을 갖는 캐릭터일 수밖에 없다.³⁹⁾ 매

39) 특히 전우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기록되게 된 시기가 충렬의 이태올로기가 강하게 작동했던 17세기 이후임을 고려하면, 전우치가 갖는 성격 특성은 승리자이자

력적인 특성으로 인해 그가 주인공이 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결말까지 승리자로 남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딱딱하고 틀에 박힌 윤리관과 가치관에서 벗어난 현대 사회에서 전우치의 성격은 결코 결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전 서사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임에도 현대사회에서도 인기 있게 수용될 수 있는 인물로 자리한 것이다. 보다 완벽한 영웅이자 승리자인 유충렬이나 소대성 같은 영웅소설의 주인공들보다 결함은 많지만 다양한 매력을 가진 전우치가 영화 시장에서 주요하게 선택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과거의 선악을 결정하는 가치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자체도 변화되면서 전우치와 같은 인물도 선인이 될 수 있고, 서화담과 같은 인물도 악인으로 형상화 될 수 있게 된 것이다.⁴⁰⁾ 이제는 전우치와 같은 매력적인 인물이 주인공으로, 더 나아가 승리자가 되는 것에 있어 어떤 누구도 고정된 윤리의 굴레로 비도덕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는 환경이라는 것이다.⁴¹⁾ 서화담과 같은 인물은 능력적인 면에서도 또 성품적인 면에서도 전우치보다 우월한 인물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전형성이 인물의 활용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기준이 되기도 한다.⁴²⁾ 즉, 능력보다 선악의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매력’이며, 해당 인물이 갖는 ‘매력’이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이다.

영웅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 있다. 정환국(2009), 앞의 논문, 236쪽 참조.

40) 전통적인 영웅과는 달리, 사회규범보다 개인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에 사람들이 호의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Hogan, Patrick Colm(2003), op. cit., p.209.

41) 물론 영화시장에서도 여전히 윤리적 굴레가 작용된다. 하지만 앞선 시기와는 달리 윤리적 규범의 잣대가 다양화된 것도 사실이다. 적어도 도술에 빠지고, 정치적으로 현달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폐배자로만 묘사하는 인식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2) 이런 이유로 <전우치>의 감독 역시 서화담 자체를 악인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악귀가 쓰이는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 고전소설 <전우치전>과 영화 <전우치>가 가장 크게 차이는 부분은 결말부이다. 서화담에게 패배한 전우치는 그의 권유에 따라 도를 닦는 것으로 서사가 마무리된다.⁴³⁾ 주인공인 전우치가 상대에게 패배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그를 따라 입산하여 도를 닦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입체적인 전우치의 성격 특성이 교훈적이고 평범한 마무리도 귀결되고 만다. 그렇기에 영화에서는 더더욱 서화담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를 징치하는 것으로 그려지게 된다. 선악의 구분이 명확해지면서 전우치의 친방지축 같은 성격 역시 부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매력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우치가 분명한 선역(善役)이기에 그가 보여는 다소 부족한 면모까지도 특별함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고전서사를 전달하는 매체의 변화는 단순하게 서사문학을 구현하는 장치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한 매체의 변화 과정 속에서 이를 수용하는 대중들의 인식과 추구하는 가치 등도 함께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같은 캐릭터도 과거와 달리 새로운 의미를 가진 채 더욱 새롭게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현 시점에서 서화담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개봉되었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 아니면 소설처럼 영화 <전우치>에서 윤리를 운운하며 서화담의 승리로 귀결되었다면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아마도 <전우치>가 기록한 흥행의 성적은 다시 쓰이게 될 것이다.

43) 이런 결말을 특성을 근거로 흥현성은 <전우치전>을 ‘스승 얻는 이야기’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우치의 부정적 행동을 스승의 부재에 따른 ‘철없던 행동’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런 분석은 <전우치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우치전>이 전우치 관련 전승의 총체적인 합임을 고려한다면, 여러 성격적 면모가 전승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화로 창작되는 지금까지 그러한 인식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흥현성, 『스승 얻는 이야기로 읽는 <전우치전>』, 『한국고전연구』 4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35~66쪽.

전우치는 오랫동안 인식의 추이를 달리하며 계속해서 전승되어 왔다. 이러한 그에게 다면적 매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고, 영화를 통해 가깝고, 윤리 의식이 희미하며, 도술도神通치 않지만, 결국 세상을 구하는 서로 이질적일 수 있는 속성들을 함께 가져갈 수 있게 된다. 그렇기에 고전 속에서 등장한 인물임에도 현대의 영화, 그것도 ‘판타지’를 표방하는 장르에서도 인기 있는 주인공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4. 결론을 대신하여 : 또 다른 미디어서사 드라마 <전우치>

영화 <전우치>는 고전소설 <전우치전> 이외에도 다양한 고전 속의 요소들을 차용한다.⁴⁴⁾ 특히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여러 요소들이 작품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다. ‘표훈대덕(表訓大德)’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기도 하고, ‘만파식적(萬波息笛)’을 소재로 활용하였으며, ‘사금갑(射琴匣)’ 화소를 재구성하기도 한다.⁴⁵⁾ 다양한 고전의 요소들이 한 데 어우러져 새로운 현대의 콘텐츠로 탄생한 것이다. 이런 다양한 고전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힘은 결국 주인공인 전우치가 갖는 특별함이라 할 수 있다.

전우치는 하나의 고정된 표상으로서 존재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다른 의미를 창출해나갔다. 이렇게 고정되지 않은 존재로서의 전우치는 오히려 다양한 방면에서 쓰일 수 있는 특성을 자연스럽게 획득해나갔다고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영화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

44) <전우치>의 감독 최동훈은 영화 속에 ‘삼국유사’, ‘전우치전’, ‘서유기’, ‘맥베스’, ‘돈키호테’ 등의 작품을 녹여 넣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연합뉴스, 『‘전우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010.01.17.

45) 조도현(2010), 앞의 논문, 381~382쪽.

장에서도 다른 고전소설 속의 주인공들과 달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었으며, 그것이 현대의 대중들에게도 호응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그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었던 전우치에 대한 전승의 과정이 영화 <전우치>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하겠다.

다만 영화 <전우치>의 성공은 이미 10년 전의 이야기이다.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그 이후로도 많은 고전소설을 활용한 영화들이 제작되었지만, <전우치>만큼의 성공을 거둔 작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새로 만들어진 각기 영화의 작품성이나 수준, 흥미도가 좌우한 것이겠지만, 고정화된 고전소설 속 인물의 전형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캐릭터의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고전소설 속 특성을 탈피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새로운 성격을 창출하지도 못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서론에서 언급한 영화 <홍부>에서는 두 개의 층위의 홍부와 놀부 캐릭터를 등장시켜 다변화를 꿈꿨으나 대중들의 선택을 받지 못 하였다. 고전 캐릭터를 새롭게 구성한다고 해서 모두 대중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영화 <전우치> 이외에도 고전소설 <전우치전>을 활용하여 새로운 미디어서사로 정착시킨 사례가 또 있다. 이는 텔레비전 드라마로 방영된 <전우치>(2012~2013)이다. 영화 <전우치>가 다양한 《삼국유사》의 인물, 소재, 화소 등을 활용하면서도 고전소설 <전우치전>의 맥락을 중심에 둔 것에 비해, 드라마 <전우치>는 <전우치전>과 함께 <홍길동전>의 배경이나 화소를 차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였다.⁴⁶⁾ 영화 <전우치>보다는 고전소설에서 거리가 더 멀어진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다.⁴⁷⁾

46) 드라마 <전우치>가 <전우치전>과 <홍길동전>을 전반적으로 수용한 것을 고려한다면, <전우치전> 이본 중 <홍길동전> 연관성이 높은 나손본을 참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나손본의 내용과 드라마 <전우치>의 내용 역시 일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단정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물론 고전소설 속의 설정을 차용한 부분도 있다. 다양한 도술로 세상 사람들을 돕는 화소는 <전우치전>의 양상과 닮아 있다. 또한 전우치와 맞서는 정적(政敵)의 이름이 ‘마강림’으로 명명되고 있기도 하다.⁴⁷⁾ <전우치전>에서 전우치를 굴복시키는 두 인물이 강림과 서화담임을 고려할 때 드라마와 영화는 그 중 한 명의 인물을 수용하여 각각 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외의 부분에서는 고전소설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부분이 대부분이다. 특히 가장 다른 점은 전우치가 조선에서 벌어지는 반역을 막는 존재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사람들을 희롱하고, 심지어 왕 마저도 속였던 전우치,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의 전승까지 활발해졌던 그가 조선의 구원자로 그려지는 것이다. 영화와 드라마 모두에서 전우치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존재하게 된다.

전우치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 속에서 계속해서 패배하고 은거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물론 모든 인물이 작품 속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전우치의 패배가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그가 갖는 극단적 양면성은 여타 고전소설의 주인공들과 비교해 볼 때 분명 특이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기에 여러 전우치 전승에서도 다양한 면모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전우치가 갖는 다양성이 매력으로 치환되었고, 다시금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통해 새롭게 부활한다. 이제 다시 쓰인 미디어서사에서 전우치

47) 드라마 <전우치>와 고전소설 <전우치전>, 그리고 <홍길동전>의 관련 양상은 구민경의 논문을 참고할 만하다. 구민경, 『고전소설의 매체 변용 양상 연구: 고전소설 <전우치전>과 TV드라마 <전우치>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72쪽.

48) 실제 드라마에서 전우치는 마강림에게 패배하여 도력을 빼앗기기도 한다. <전우치전>에서 전우치와 강림의 승패를 수용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전개는 달라지는데, 스승으로부터 도력을 기증 받고 결국 마강림을 극복하고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하는 역할을 한다.

는 언제나 승리자이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승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승리로 귀결된다. 즉, 전우치는 ‘영웅’으로 형상화된다. 이렇게 볼 때, 영웅을 부르는 것은 영웅 자신이 아니라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시대에서는 영웅 전우치가 다시 어떤 모습으로 수용될지 그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참고문헌

- 구민경, 「고전소설의 매체 변용 양상 연구 : 고전소설 <전우치전>과 TV드라마 <전우치>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72쪽.
- 권순궁, 「서화담에 관한 ‘이야기 만들기’와 『서화담전』의 형성」, 『민족문화』 48, 한국고전번역원, 2016, 113~146쪽.
- 김미란, 「『서화담전』 연구: ‘전우치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내어문학』 14,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2003, 39~62쪽.
- 김일렬 역주, 『홍길동전/전우치전/서화담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1~463쪽.
- 김정문, 「『전우치전』의 개작 연구 - 목판본과 구활자본의 대비를 통하여-」, 『배달말』 19, 배달말학회, 1994, 187~209쪽.
- 문범두, 「<전우치전>의 이본 연구 - 형성과정과 의미를 중심으로-」, 『영남어문학』 18, 영남어문학회, 1990, 227~256쪽.
- 박일용, 「전우치전과 전우치 설화」, 『국어국문학』 92, 국어국문학회, 1984, 37~60쪽.
- 박일용, 「영웅소설 하위 유형의 이념 지향과 미학적 특징」,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125~152쪽.
- 변우복, 「신문판본 <전우치전>의 개작 양상과 개작자」, 『국제어문』 18, 국제어문학회, 1997, 109~134쪽.
- 변우복, 「『전우치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229쪽.
- 서유경, 「<전우치전> 읽기의 문화적 확장 탐색 -<전우치전>과 <브루스 올마이티>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20, 한국독서학회, 2008, 201~231쪽.
- 신원선, 「한국고전소설의 영상콘텐츠화 성공방안 연구 - 영화 <전우치>와 <방자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365~402쪽.
- 신호림, 「심청전에 대한 현대적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 영화 <마담 뵙덕>(2014)을 대상으로-」, 『동양고전연구』 66, 동양고전학회, 2017, 303~330쪽.
- 안기수, 「고소설 <전우치전>의 게임화 방안 연구」, 『어문논집』 67, 중앙어문학회, 2016, 67~95쪽.
- 유서연, 「문화콘텐츠로서 스토리 기반의 슈퍼히어로 캐릭터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131쪽.

- 윤재근, 「전우치전설과 『전우치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1~97쪽.
- 이동근, 「고전소설의 장르 전환 연구 - 영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64쪽.
- 이상구, 「광양 태인도의 <전우치전설> 연구」, 『국어교육연구』 44, 국어교육학회, 2009, 353~394쪽.
- 이유진, 「고전소설 교육의 영화매체 활용 방안 연구 : 고전소설 <전우치전>과 영화 <전우치>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74쪽.
- 이종필, 「전우치 전승의 양가적 표상과 그 역사적 맥락」, 『어문논집』 75, 민족어문학회, 2015, 33~56쪽.
- 이종호, 「고전소설 <던우치전>과 영화 <전우치>의 서사구조 비교 연구」, 『은지는총』 26, 2010, 243~270쪽.
- 이현국, 「<전우치전>의 형성과정과 이본간의 변모양상」, 『문학과 언어』 7,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6, 143~162쪽.
- 이후남, 「치유담으로 읽는 <전우치전> -조선판 다중인격 전우치」, 『문학치료연구』 48,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215~242쪽.
- 임방, 정환국 역, 『천예록 : 조선시대 민간에 떠도는 기이한 이야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1~517쪽.
- 전상욱, 「세책 <전우치전>의 위상과 의미 - 신문관 육전소설 및 경판 37장본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열상고전연구』 59, 열상고전학회, 2017, 311~342쪽.
- 전숙경, 「영화 ‘전우치’를 활용한 고전소설 <전우치전> 교육방안」,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56쪽.
- 정다정, 「영화 <전우치>의 소설 <전우치전> 수용 양상」,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68쪽.
- 정명기, 「鶴山閑言」, 『한국야담자료집성』 8, 계명문화사, 1987, 1~620쪽.
- 정선경, 「고전의 현대적 변용 : 영화 『전우치』의 공간 읽기」, 『도교문화연구』 35, 한국도교문화학회, 2011, 143~169쪽.
- 정혜경, 「고전서사를 활용한 콘텐츠 동향과 기획」, 『우리문학연구』 57, 우리문학연구회, 2018, 119~159쪽.
- 정환국, 「전우치 전승의 굴절과 반향」, 『민족문화사연구』 41, 민족문화사학회, 2009, 213~239쪽.
- 조도현, 「<전우치> 서사의 현대적 변이와 유통방식 : 영화 <전우치>를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학』 74, 2010, 371~390쪽.
- 조해진, 「한국판타지영화의 발전환경 및 가능성 연구」, 『인문콘텐츠』 21, 인문콘텐츠학회, 2011, 149~175쪽.
- 진수미, 「자기반영성의 영화로서 <전우치> -매체 재현을 중심으로」, 『씨네포럼』 26,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17, 239~266쪽.
- 최광석, 「<전우치전>의 설화 수용과 지평 전환」, 『국어교육연구』 28, 국어교육학회, 1996, 151~176쪽.
- 최지선, 「<전우치전>의 육망 구현 방식과 서사적 의미 - 신문판본 <전우치전>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28, 돈암어문학회, 2015, 227~259쪽
- 홍만중 편, 황윤석 증보, 신해진 외 역, 『증보 해동이적』, 경인문화사, 2011, 1~227쪽.
- 홍현성, 「스승 얻는 이야기로 읽는 <전우치전>」, 『한국고전연구』 4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35~66쪽.
- 현승훈, 「한국형 슈퍼히어로 영화의 영상미학적 특성 연구 - 영화 <전우치>의 플롯구조와 인물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0, 한국콘텐츠학회, 2013, 132~139쪽.
- Hogan, Patrick Colm, *The Mind and its Stories: Narrative Universals and Human Emo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1~320.

ABSTRACT

The Tradition of Jeonwochi and Its Transformations
in Contemporary Media Narratives

Jeong, Je-ho

The protagonist of classical novel *Jeonwuchijeon* shows both sides. Jeonwuchi helps the hard person and punishes evil. But the king is harassed and the woman is raped. It shows various aspects in one work. Especially, it is a peculiar point that the main character is defeated in the ending. And another story about Jeonwuchi tells him that he is a bad person. At that time people can see that he perceived him negatively.

But in the Media Narrative, Tom is seen as a winner and savior of the world. Still, he has a bad face, but the results have changed. In the past, the world was deceived by Taoist magic, but now it saved the world. These ending chang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markets that consume them. So the loser, Jeonwuchi, could be accepted as a new hero.

This awareness of Jeonwuchi appears not only in movies but also in dramas. It is an environment where diversity is accepted as an attraction. Ultimately, the meaning of hero has something to do with how he is perceived rather than what he acts.

Key Words *Jeonwuchijeon*, *Jeon woochi: The Taoist Wizard(film)*, Media Narrative, Transferral, Refraction

논문투고일 : 2018.10.20
심사완료일 : 2018.11.10
게재확정일 : 2018.11.19